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꺼진 불은 다시 보고,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이름	윤채정
전공	임산생명공학과
학번	20221914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회차)

꺼진 불은 다시 보고,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이 사진을 본 적 있는가? 수많은 파생 맘을 낳은 대표적인 비문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하고,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곽수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장이 생각났다. 글쓰기가 이 강의를 들었다면, 글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비문임을 깨닫고 다음처럼 수정하지 않았을까?

나 아는 사람 중에 강다니엘 닮은 사람이 있어. 이모가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엔 강다니엘 닮았다고 하시더니, 다시 보니까 안 닮았다고 하시더라. 우리 엄마도 그 사람 보고 강다니엘 닮았다고 했었는데,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보면 안 닮았다고 하실까?

난해한 글을 어떤 과정으로 수정할 수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준 강의, ‘한 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문장, 문단 고쳐쓰기’에 대한 글을 써보려 한다.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에 ‘고쳐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헤밍웨이의 유명한 말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듯이 작가라면 누구나 탈고의 과정을 중요히 여긴다. “그래. 초고는 쓰레기야! 그래서 이제 어떡해야 하는데?” 하지만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초보들이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곽수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서 『탄탄한 글쓰기 공부』도 찾아 읽으며 퇴고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갔다. 여기서 교수님은 고쳐 쓰기를 ‘여행길’에 비교한다. 초고를 쓸 때 놓친 부분, 빼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 오탈자와 비문 같은 실수를 찾을 기회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행길에서 내가 놓쳤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초고를 여러 번, 오래 고친다. 못 쓰는 사람은 한 번 쓴 글을 거의 고치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도 반영하지 않는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고쳐 쓰기 과정에서 더하고 빼는 표현과 어휘가 많다고 하는데, 내가 본 작법서에도 퇴고할 때는 처음 글에서 분량을 삼분의 일가량 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열심히 쓴 글을 지우기 아까울 때도 있지만, 결국 완성된 글의 본질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뚜렷하게 구체화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려운 주제에 대한 글을 쓸 때는 독자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초고를 볼 때 완벽해서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보며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글 잘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다. 능숙한 필자는 대체 어떻게 다르길래 망설임 없이 문장을 버리고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일까? 고쳐 쓰기를 할 때 가져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①이 글을 통해 전하려는 한 가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글의 요점을 정하고 설명과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 글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문단은 중심 문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 중심 문장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독자는 필자가 무슨 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몰라 피로해진다. 따라서 하나의 대주제를 정하고, 모든 문단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②내 글의 목적은 무엇이고, 독자는 누구인가?

이 글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일기장을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쓰는 글은 읽어줄 사람, 즉 '독자'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화학에 대한 정보 전달'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쉽게 배우는 화학'과 같은 글을 쓰게 될 것이고,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기 화학', '분석 화학' 등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지식에 관해 쓰게 될 것이다.

③충분한 근거를 포함하였는가?

전달하려는 내용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잘못된 정보거나 주장에 맞지 않은 근거를 가져온다면 글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되고, 결국 우리 글은 읽히지 않을 것이다. 논문을 기고하게 되었는데 실험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부실하여 어디에도 실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④꼭 필요한 내용만 포함하였는가?

아까워서 지우지 못한 표현, 문장, 문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 퇴고할 때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지우기를 망설이는 편이었다. 하지만 강의에서 관련 내용을 듣고 난 후로는 문장이 마음에 들어도 전체적인 글에 호응하지 않으면 머뭇대지 않고 지워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⑤표현상의 실수는 없는가?

어법과 어휘 측면에서 고쳐야 할 문장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맞춤법 검사기는 반드시 한번 돌려야 한다. 다만 이는 오타자만 교정할 수 있을 뿐 표현을 고쳐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의 경우엔 우선 불필요한 접속어, 지시어, 접미사, 의존명사, 조사, 중복이 있는지를 살핀다. 특히 우리는 영어의 영향으로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과 같은 접속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말에서는 문장 안에 접속어의 의미를 이미 담은 경우가 많고, 문장의 내용이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접속어를 쓰지 않는 간결함을 추구하기에 덜어낼 수 있는 단어는 덜어내는 것이 좋다.

또한, 나는 풍부한 어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에게 명확히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한 후 단어장으로 정리하거나, 『우리말 어감 사전』(안상순 저), 『감정 어휘』(유선경 저) 등의 책을 읽으며 어휘와 표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처음에 나온 글을 다시 써보자.

<원문>

나 아는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보게되는게 다시 그때처럼 안닮게 엄마보면 느껴지는걸수도 있는거임? 엄마도?

<맞춤법 고치기>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 것임? 엄마도?

<서술어 호응 살피기, 문장 나누기 등 수정>

나 아는 사람 중에 강다니엘 닮은 사람이 있어. 이모가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엔 강다니엘 닮았다고 하시더니, 다시 보니까 안 닮았다고 하시더라. 우리 엄마도 그 사람 보고 강다니엘 닮았다고 했었는데,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보면 안 닮았다고 하실까?

이 글은 짧고 익명 사이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고쳐 쓰기의 질문들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 글의 필자가 이 강의를 들었다면 글을 올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고쳐 쓰지 않았을까 싶다. 고쳐 쓰기는 한 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기 좋은 방법이다. 이 소감문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퇴고 과정을 거쳤고, 이처럼 이번 글말교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이곳저곳에 적용해 볼 생각이다. 여러분도 이 강의와 소감문을 통해 고쳐 쓰기의 중요성을 알고 시도해보길 바란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속담을 빌려 나는 고쳐 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 쓴 글도 다시 보자!”